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129 - 160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 2010 - 2024 국내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조영숙*, 정진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 장애인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학위논문 31편과 학술지 4편, 총 35편을 발행 정보,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순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 정보 (발행 연도, 발행 기관, 전공별)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발행 추세를 보였으며,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연도는 2016년과 2020년이였다. 둘째, 연구 대상 (성별, 발달 단계, 장애 등급) 분석 결과, 여성 대상자보다 남성 대상자가 많았다. 셋째, 연구방법 (구조 분석, 분석 기준, 검사 도구, 프로그램 목표분석, 매체 분류, 프로그램 분류) 분석 기준에서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지적 장애인의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임상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활용에 필요한 방향과 근거를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지적장애, 자기표현, 미술치료, 국내 연구 동향

* 우석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고, 이 과정에서 자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한다.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완성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인은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체화한다.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위치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개인의 생각, 감정, 의견 등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능력과 직결된다. 특히 이러한 자기표현 능력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개인의 사회적 적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이한술, 2022).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미술 활동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심리적·정서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정여주, 2003). 국내 미술치료는 1991년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설립되고, 1994년부터 「미술치료연구」가 발간된 이후로 크게 성장해왔으며, 국외와 마찬가지로 우울, 불안, 문제행동,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김도희, 2017). 미술은 심상의 표현으로 창조성을 가진 에너지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미술치료의 장점과 다른 예술 형태 및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 대상에 따라 증상과 상황에 감정과 감각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통합 미술치료이다(최미경, 2010). Naumberg는 미술치료에서 미술을 통한 상징성과 상호작용을 중요한 치료적 요인으로 강조하였다. 미술치료는 일반적인 언어적 상담과는 달리 풍부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성이 있다(Malchiodi, 2008). 미술치료는 창작을 통한 내면세계의 현실화 과정 속에서 개인의 갈등적인 심리 상태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관련된 갈등 관계에 있는 심리·정서적인 요인을 창작을 통해 조화롭게 해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개인 내면의 심리적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병리적인 정신구조를 재구성하게 해준다(Malchiodi, 2001). 미술 매체를 활용해 시각화를 통한 상징적 표현이 가능하며, 미술치료는 심리적 이론을 기본 틀로 하고 여기에 더해 미술 활동이 첨부된 새로운 심리치료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미술치료는 미술을 통해 자신의 경험들이나 내적 상황을 표출하고,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을 작품에 표출하게 하여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이를 승화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치료라고 할 수 있다(이상설, 2012). 미술치료를 통한 자기표현은 비

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의 표출구가 되며, 결과적으로 미술치료에서의 미술 활동이 가지는 가치는 무의식과 표출되지 않는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표현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이다. 이렇듯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미술 활동에 의한 시각적 행동과 상징적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미술적 자기표현의 향상을 통해 자기표현 및 언어표현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미술이라는 매체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내담자에게 맞는 매체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Lowenfeld, 1987).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은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미술 활동은 이러한 비언어적 자기표현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입증되었다(곽예지, 2016). 미술치료는 미술 매체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며, 그림은 언어적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미술치료 작품을 완성해 가며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임효영, 2023). 미술치료는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 그리고 심리적 혼란을 겪는 노인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술치료는 미술 활동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 치유를 돕고, 현실 인식을 증진하며,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현실 적응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성인 지적장애인들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인지적 결함으로 인해 오는 불안감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언어적 표현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경희, 2013). 지적장애인은 언어적 표현의 제약과 기능의 미숙함으로 인해 자신을 적절히 표현하고 의미 있는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에게 자기표현을 돕고 사회성 향상과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심리지원으로 미술치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Rubin(2001/2012)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상황이나 연령에 적합하지 않게 감정을 표출한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도 미숙함을 보이지만, 미술치료 안에서는 분노, 충동적인 반응, 망상, 자극적 행동 등 무의식적 양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정서와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송주혜, 2012). 성인 지적장애인은 지적 아동기·청소년기에 비해 사회생활과 다양한 환경에 넓게 노출되어 있지만, 타인과의 의미 있는 사회관계 형성이 어렵고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편히 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박세미, 2017). 미술치료는 지적장애인의 정서와 욕구를 표현하고,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한다(김선정, 2009; 지한내, 2011). 미술치료는 감정, 생각, 행동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심리치료의 한 형태로,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 비언어적으로 감정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자기표현에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적장애인에게 여실히 드러난다(도은록, 2009). 어떤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뿐

만 아니라 몸짓 언어, 눈맞춤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발달하지만, 지적장애 청소년에게는 자연스러운 발달이 어렵다(이가영, 2014). 미술 치료가 정신지체 아동에게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으로 미술 자기표현 향상과 언어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미숙(2003)의 연구에서는 미술을 통해 자기표현의 확장과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집단에서도 집단 미술치료를 통한 미술 표현 활동이 자기표현력과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하였다(윤명경, 2005). 선행연구들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미술치료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곽예지, 2016). 교육 현장에서는 치료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이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연극치료, 놀이치료, 운동치료, 원예치료 등이 있다. 이러한 심리치료는 정서적인 면에 접근하고, 활동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장애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며, 자기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곽예지, 2016).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고려한 치료적 개입이 효과적인 자기표현 촉진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및 자기표현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 분야에서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와 관련된 자기표현 연구 자료에서 발행 정보(발행 연도, 발행 기관, 전공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이들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지적장애인의 성별, 발달 단계, 장애 등급은 어떠한가?

셋째,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와 자기표현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연구 방법(구조 분석, 분석 기준, 검사 도구, 프로그램 목표 분석, 매체 분류, 프로그램 분류) 동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기준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 관련 연구들은 RISS 검색 사이트에 처음 등록된 박주연과 백은희(1999)의 연구를 시점으로, (임지향, 조기연, 2005; 임지향, 2008) 등의 순으로 발표되었으며, 이후 매년 꾸준히 한 편씩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최근 14년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지적장애 미술치료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총 34편의 연구 중 학위논문이 31편, 학술지 논문이 4편 수집되었다. 기준은 <표 1>과 같이 발행 정보,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기준을 통해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학술적 기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과 방법론을 참조하여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와 자기표현에 관한 연구를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설정된 분석 항목과 분석 기준에 따라 분류한 내용은 미술치료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과 교수 1인의 검토와 동향 연구 전문가 1인의 자문을 거쳐 협의된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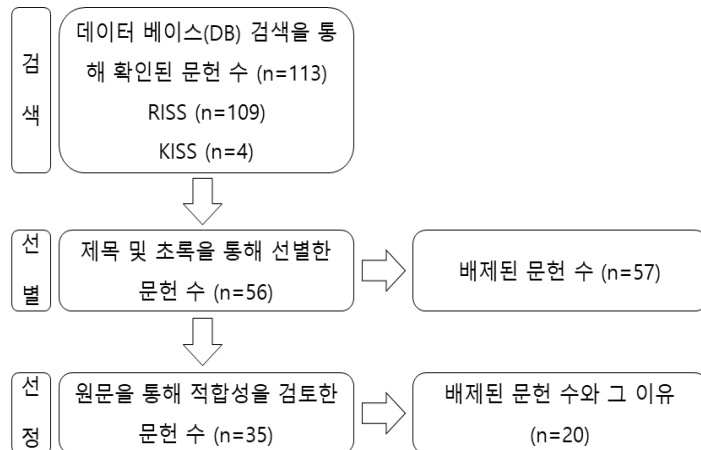
<표 1> 분석 기준

분석항목	세부분석내용
연구발행정보	발행연도, 발행기관, 연구자 전공
연구대상	성별, 발달단계, 장애등급
연구방법	구조분석, 분석기준, 검사 도구, 프로그램목표분석, 매체분류, 프로그램 분류)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와 같은 논문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먼저 ‘미술치료’를 주제로 검색한 후, 결과 내 재검색 및 상세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 등의 주제로 1차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특히 ‘지적장애’를 주제로 검색했을 때는 자기효능감, 사회성, 정서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검색되었으므로, 각 논문

의 초록과 원문을 검토하여 자기표현과 관련된 논문들만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에 대한 자료 수집은 [그림 1]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림 1] 문헌수집절차

2) 연구주제의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김도희와 김혁진(2022), 김이현 외(2022), 김혜진(2023)의 분석 틀을 사용하였으며,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와 자기표현에 관한 학술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학술정보(KRISS)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검색어로는 ‘정신지체’,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의 시기적 변화와 학문적 분포 분석에서는 논문의 발행 정보(발행 연도, 발행 기관, 전공별) 동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의 시기적 변화와 기관별, 학문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특정 시기나 기관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는지, 또는 특정 전공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와 자기표현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학문적 접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변화해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은 지적장애인의 성별, 발달 단계,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각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대표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구에서 다른 대상의 특성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연구 방법 분석은 구조 분석, 분석 기준, 검사 도구, 프로그램 목표 분석, 매체 분류, 프로그램 분류 등의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각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적 접근을 상세히 검토하고, 연구 설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설계의 타당성은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신뢰성은 연구 결과의 재현 가능성과 관련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연구의 방법론적 강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은 향후 연구와 임상 적용에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명확하고 성과 중심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와 자기표현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및 임상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동향 분석은 미술치료의 이론적 발전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Ⅲ. 연구결과

1. 발행정보별 동향

1) 발행연도별 현황

지적장애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다룬 연구의 연도별 현황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연도별 현황

구분	년도	수	비율	구분	수	비율
학위논문	2010	2	5.7%	학술지	1	2.9%
	2011	2	5.7%			
	2012	0				
	2013	5	14.3%			

구분	년도	수	비율	구분	수	비율
	2014	1	2.9%			
	2015	2	5.7%			
	2016	2	5.7%			
	2017	2	5.7%			
	2018	4	11.4%		1	2.9%
	2019	3	8.6%			
	2020	5	14.3%			
	2021	0			1	2.9%
	2022	0			1	2.9%
	2023	1	2.9%			
	2024	2	5.7%			
	합계	31	88.6%	합계	4	11.4%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년 동안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전체적으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2012년, 2021년, 2022년에는 관련 논문이 발표되지 않았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편(5.7%)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2013년에는 5편(14.3%)으로 연구 발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1~4편의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었고, 특히 2018년에는 4편(11.4%), 2019년에는 3편(8.6%)이 발표되어 연구의 관심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에는 2013년과 동일한 5편(14.3%)의 연구가 발표되어 다시 한 번 연구가 활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구 발표가 없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편(2.9%), 2편(5.7%)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 분야에서 연구의 지속성과 주기적 변동을 보여준다.

특히, 특정 연도에 집중된 연구 활동과 그 이후의 감소는 외부적 요인(예: 학계의 관심 변화, 연구 자원의 변화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다룬 연구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발행기관별 현황

지적장애인 미술치료 자기표현 분석 연구 자료의 발행 기관 현황은 〈표 3〉과 같다.

다음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자료의 발행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학위논문과 학

술논문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 연구를 발행해 왔다. 학위논문 발행 기관 중에서는 대구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가 각각 4편(11.4%)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에는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대전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가 각각 2편(5.7%)의 연구를 발행하였다. 그 외에도 한일장신대학교, 동의대학교, 한서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평택대학교가 각각 1편(2.9%)의 연구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발행기관별 현황

구분	분류	수	비율
학위논문 출처	대구대학교	4	11.4%
	단국대학교	4	11.4%
	동국대학교	4	11.4%
	영남대학교	2	5.7%
	우석대학교	2	5.7%
	한양대학교	2	5.7%
	건국대학교	2	5.7%
	대전대학교	2	5.7%
	광주여자대학교	2	5.7%
	한일장신대학교	1	2.9%
	동의대학교	1	2.9%
	한서대학교	1	2.9%
	원광대학교	1	2.9%
	추계예술대학교	1	2.9%
	동덕여자대학교	1	2.9%
학술지 출처	평택대학교	1	2.9%
	정서행동장애연구	2	5.7%
	임상미술심리연구	1	2.9%
	미술치료연구	1	2.9%
합계		35	100%

3) 전공별 현황

지적장애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다룬 연구의 연구자 전공 현황은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다음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자들의 전공은 주로 미술치료학과, 예술치료학과, 특수교육학과, 미술상담학과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

미술치료학과 전공의 연구자들이 11편(31.4%)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예술치료학과가 7편(20.0%)으로 두 번째로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특수교육학과가 4편(1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미술상담학과와 교육학과가 각각 3편(8.6%)씩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통합예술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상담복지학과에서 각각 1편(2.9%)씩 연구가 발표되었다.

학술논문의 경우, 정서행동장애연구에서 2편(5.7%), 임상미술연구와 미술치료연구에서 각각 1편(2.9%)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표 4〉 연구자의 전공별 현황

구분	학과	수	비율
전공	미술치료학과	11	31.4%
	예술치료학과	7	20.0%
	특수교육학과	4	11.4%
	미술상담학과	3	8.6%
	교육학과	3	8.6%
	통합예술학과	1	2.9%
	문화예술경영학과	1	2.9%
	상담복지학과	1	2.9%
	정서행동장애연구	2	5.7%
학술지	임상미술연구	1	2.9%
	미술치료연구	1	2.9%
	합계	35	100%

2. 연구대상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성별, 발달 단계, 장애 등급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표 5〉 연구대상의 성별, 발달 단계, 장애 등급 현황

구분	세부내용	분류	수	비율	합계
연구대상	성별	남성	69	53.9%	100%
		여성	59	46.1%	
	발달단계	유아	3	2.3%	100%
		아동	7	5.5%	
		청소년	44	34.4%	
		성인	74	57.8%	
	장애등급	1급	22	17.2%	100%
		2급	54	42.2%	
		3급	52	40.6%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8명 중 남성이 69명(53.9%)으로, 여성이 59명(46.1%)보다 1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발달 단계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아는 3명(2.3%), 아동은 7명(5.5%), 청소년은 44명(34.4%), 성인은 74명(57.8%)으로, 성인 대상이 전체 연구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연구 대상의 지적장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는 폐지된 장애 등급 기준을 사용한 결과, 1급 장애인이 22명(17.2%), 2급 장애인이 54명(42.2%), 3급 장애인이 52명(40.6%)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급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3. 연구방법 분석기준

1) 연구 구조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다룬 선행 연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 연구의 구조분석

범주	구분	내용					
구조분석	총 회기 수	10~15	16~20	21~25	26~35	36이상	미표기
		12	11	5	3	4	0

범주	구분	내용					
	주 회기 수	1	1~2	2	2~3	3	미표기
		14	2	12	2	2	3
	회기별 시간	40	50	60	80	90이상	미표기
		2	10	14	1	5	3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적장애 미술치료에서 사용된 치료 회기 수, 주당 회기 수, 회기별 소요 시간 등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치료 회기 수는 연구에 따라 최소 10회에서 최대 36회 이상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치료 회기 수는 10~15, 16~20, 21~25, 26~35, 36회기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당 회기 수는 주 1회, 주 1~2회, 주 2회, 주 2~3회, 주 3회도 다양하게 설정되었으며, 이는 연구마다 치료의 집중도와 지속성을 다르게 설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회기별 소요 시간은 40분, 50분, 60분, 80분, 90분 이상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60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에 관한 실험 연구 사례 35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실험 연구 유형 분석

구분	수	비율
단일 사례 연구	15	42.9%
단일 집단 사례 연구	18	51.4%
동질 통제 집단 설계	2	5.7%
합계	35	100%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연구의 설계 유형은 크게 단일 사례 연구, 단일 집단 사례 연구, 동질 통제 집단 설계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단일 사례 연구(design)는 15편(42.9%)으로 나타났으며, 단일 집단 사례 연구(design)는 18편(51.4%)으로, 전체 연구 중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 자기표현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객관적, 투사적 검사 도구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다음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객관적 검사 도구는 총 54편(59.3%)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객관적 검사 도구는 다음과 같다. 자기표현 평정척도(18회, 19.8%), 미술적 자기표현 능력 평가(8회, 8.8%), 사회성 기술 평정척도(4회, 4.4%),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4회, 4.4%), 자기표현 척도 체크리스트(4회, 4.4%), 또래 관계 척도(2회, 2.2%), 사회성 기초기능 척도(2회, 2.2%), 언어적 자기표현 능력 평가(2회, 2.2%), K-CDI 아동발달 검사(2회, 2.2%), 대인관계 검사(1회, 1.1%), 성인 행동평가 척도(1회, 1.1%), 웨슬러 지능검사(K-WAIS)(1회, 1.1%), 이화-자폐 아동행동발달 평가(1회, 1.1%), 의사소통 유형 척도(1회, 1.1%), 자기표현 향상의 5가지 체크리스트(4회, 4.4%), 한국판 성인 행동평가(1회, 1.1%), MMPI-A(다면적 인성검사-청소년용)(1회, 1.1%) 등이다. 다음으로, 투사적 검사 도구는 총 23회 사용되었다. 주요 투사적 검사 도구는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12회, 13.2%), 동적 학교생활화(KSD)(4회, 4.4%), 집-나무-사람 그림검사(HTP)(3회, 3.3%), 동적 가족화 검사(KFD)(2회, 2.2%), 동물 가족화 검사(1회, 1.1%), 자유화(1회, 1.1%) 등이다. 투사적 검사 도구들은 피험자의 무의식적인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는 데 유용하며, 특히 K-HTP와 KSD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기타 검사 도구로는 행동 관찰 평가, 직접 관찰(회기당 발생 빈도, 고립 행동 관찰표, 자기표현 행동 관찰표), 언어 이해력 4컷 동화 카드, 언어 표현력 5컷 그림 카드 등이 있으며, 총 14회(15.4%)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구 측정 도구 현황

분류	연구도구	개수	비율
객관적 도구	자기표현평정척도	18	19.8%
	미술적자기표현능력평가	8	8.8%
	사회성기술평정척도	4	4.4%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K-CBCL)	4	4.4%
	자기표현척도체크리스트	4	4.4%
	또래관계척도	2	2.2%
	사회성기초기능척도	2	2.2%

분류	연구도구	개수	비율
	언어적자기표현능력평가	2	2.2%
	K-CDI아동발달검사	2	2.2%
	대인관계검사	1	1.1%
	성인행동평가척도	1	1.1%
	웍슬러지능검사(K-WAIS)	1	1.1%
	이화-자폐아동행동발달평가	1	1.1%
	의사소통유형척도	1	1.1%
	자기표현향상의 5가지 체크리스트	1	1.1%
	한국판성인행동평가척도	1	1.1%
	MMPI-A(다면적 인성검사-청소년용)	1	1.1%
소계		54	59.3%
투사적 도구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	12	13.2%
	동적 학교생활화(KSD)	4	4.4%
	집-나무-사람 그림검사(HTP)	3	3.3%
	동적 가족화검사(KFD)	2	2.2%
	동물 가족화검사	1	1.1%
	자유화	1	1.1%
소계		23	25.3%
기타	연구자에 의한 도구 (행동 관찰 평가, 직접 관찰, 언어 이해력 4컷 동화 카드, 언어 표현력 5컷 그림 카드 등)	14	15.4%
합계		91	100%

4) 프로그램 목표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촉진하기 위한 미술치료 중재 목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프로그램 목표분석

구분	단어	초기	중기	후기	합계
흥미유발	자기소개	3	-	-	3
	흥미	13	3	-	16
소계		16	3	-	19
관계형성	관계	-	5	7	12
	근육	-	2	-	2

구분	단어	초기	중기	후기	합계
	동기유발	-	2	-	2
	동기증진	-	-	1	1
	라포	11	-	-	11
	사회성	-	-	3	3
	상호작용	4	14	16	34
	친밀감	12	-	1	13
소계		27	23	28	78
감정인식 및 자기표현	감정발산	1	4	-	5
	감정이완	1	-	-	1
	감정인식	5	3	4	12
	감정표출	-	6	3	9
	감정표현	2	9	2	13
	긴장	11	1	1	13
	매체탐색	5	3	3	11
	매체활용	-	5	2	7
	스트레스	-	1	-	1
	욕구	2	9	1	12
	자극촉진	-	1	-	1
	정서	3	3	4	10
	정서표현	-	1	1	2
	지적표현	1	1	-	2
소계		31	47	21	99
긍정적 부정적 자아상	긍정적	1	8	10	19
	부정적	-	7	-	7
소계		1	15	10	26
자기성장 및 자기실현	자기이해	3	6	2	11
	자기인식	7	8	3	18
	자기탐색	2	2	-	4
	자기표현	11	31	35	77
	자아	5	3	2	10
소계		28	50	42	120
타인인식 및 타인이해	타인이해	-	3	4	7
	협력	-	-	8	8
	협응	-	1	2	3

구분	단어	초기	중기	후기	합계
소계		-	4	14	18
자아실현	성취감	1	8	11	20
	자신감	1	2	4	7
	자존감	1	4	2	7
	적극적	-	2	4	6
	창조적표현	1	1	1	3
	희망	-	-	1	1
소계		4	17	23	44
기간별 목표분석	총 합계	107	159	138	404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재 목표는 총 7가지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각 범주별 목표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설정된 중재 목표는 자기성장 및 자기실현으로, 총 120회(29.7%)로 나타났으며, 관계 형성 목표는 78회(19.3%)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 개선이 주요한 중재 목표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그 외에도 기타 목표가 44회(10.9%), 긍정적/부정적 자아상 목표가 26회(6.4%), 흥미 유발 목표가 19회(4.7%), 타인 인식 및 타인 이해 목표가 18회(4.5%)로 나타났다. 또한, 중재 목표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초기 목표는 107회, 중기 목표는 159회, 후기 목표는 138회로, 총 404회로 나타났다.

5) 프로그램 매체분류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 매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프로그램 매체분류

구분	대분류	소분류
드로잉 및 페인팅 매체	종이매체	절지, 2절지, 4절지, 8절지, 한지, 색종이, 마분지, 잡지, 화장지, 도안, 화선지, 색 도화지, 티슈, 카드, 상장용지, 일기, 카드사인
	합성매체	우드 락, 하드보드지, 캠퍼스, 스티로 폼, 아크릴판, 폼 보드지, 스크래치 페이퍼, 코 텅지, 글 루건, 사포, 카드, 그림카드, 종이접시, 감정 카드, 명언 카드, 사진
	접착매체	물풀, 테이프, 본드, 스티커, 마스킹테이프, 목공용 풀, 스티커, 석고붕대
	드로잉	연필, 크레파스, 싸인펜, 펜, 색연필, 파스텔, 매직, 유성매직, 파스텔, 섬유용 매직, 염색 펜
	채색 도구	물감, 먹물 페인트, 밀가루 풀, 식용 색소, 면도 크림, 글라스데코, 금색 스프레이, 볼 클레이, 스프레이, 비눗방울, 주방세제, 모래 샌드, 염색약
모델링 매체	비정형 매체	점토, 유 토, 찰흙, 클레이, 밀가루 풀, 색 모래, 주방세제, 분무기, 물, 금색 락카 스프레이
	정형화 매체	종이 가면, 종이컵, 양초, 지우개, 유리병, 둥근 접시, 도자기, 공 지퍼, 빨대, 포크, 물약 통, 명찰, 블록 판, 수수깡, 솜, 풍선, 가면, 액자 틀, 면봉, 플라스틱 숟가락, 플라스틱 컵, 투명우산, 플레이 콘, 그릴 판, 조명 키트
도구	종이용 도구	가위, 칼, 자
	만들기 도구	자, 조각도, 톱, 송곳, 글루건, 털 철사, 노끈, 나무망치, 드라이버, 쿠키 틀, 종 샷, 콧 파스, 만들기 장식
	그리기도구	붓, 물통, 팔레트, 물, 롤링페인팅 도구, 채색 도구, 아크릴판, 뚜껑 채색 도구, 스테이플러, 백붓
	착용도구	앞치마, 토시
미디어	인쇄물	신문, 잡지, 광고물
	영상기자재	사진기, OHP필름, 사진인화기, 키보드, 싸인펜, 영상물
꾸미기	끈 종류	노끈, 낚시줄, 꾸미기줄, 고무줄, 털실
	반짝이 종류	반짝이 풀, 별모양, 반짝이 ,리본장식, 눈알, 스팅클
	만들기 재료	스펀지, 뚜껑채색도구, 다양한 오브젝, 손 인형 만들기, 휴지심, 전지, 장신구, 꾸미기재료, 리본장식
	천	광목천, 흰색 티, 보자기, 무지 에코 백
자연물	국물류	밀가루, 녹말, 식용유, 과자, 계란껍데기, 소금, 꼬깔콘, 쌀
	식물류	꽃, 나뭇잎, 배추, 꽃씨, 스칸디 아모스, 이쑤시개, 나뭇잎, 나무 조각, 나무주걱, 메추리알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된 총 매체 수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치료 목표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된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매체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드로잉 및 페인팅 매체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매체 유형으로, 주로 색연필, 크레파스, 물감, 마커 등의 도구를 포함하여 자기표현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둘째, 모델링 매체는 점토, 플라스틱, 종이 접기 등의 입체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셋째, 미디어 매체는 디지털 도구나 영상, 사진 등의 현대적 매체를 활용한 것으로, 특히 청소년 및 성인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표현 방식으로 나타났다. 넷째, 꾸미기 매체는 콜라주, 스티커, 비즈 등의 장식 요소를 포함하여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물 매체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나뭇잎, 돌, 꽃 등을 이용한 것으로,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감각적 경험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도구들이 매체 사용을 보조하거나 확장하는 데 사용되었다.

6) 매체별·기간별 분류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위해 사용된 매체를 6가지 종류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매체별·기간별 분류

대분류	소분류	초기		중기		후기		매체별 계	
드로잉 및 페인팅 매체	종이매체	87	21.5%	110	20.4%	85	18.9%	282	823
	합성매체	10	2.5%	30	5.6%	36	8.0%	76	
	접착매체	14	3.5%	42	7.8%	33	7.3%	89	
	드로잉	88	21.8%	99	18.4%	73	16.2%	260	
	채색도구	42	10.4%	45	8.3%	29	6.4%	116	
모델링 매체	비정형매체	55	13.6%	55	10.2%	40	8.9%	150	258
	정형화매체	38	9.4%	36	6.7%	34	7.6%	108	
도구	종이용 도구	8	2.0%	13	2.4%	20	4.4%	41	170
	만들기 도구	15	3.7%	25	4.6%	10	2.2%	50	
	그리기 도구	19	4.7%	31	5.8%	27	6.0%	77	
	착용 도구	2	0.5%	0	0.0%	0	0.0%	2	

대분류	소분류	초기		중기		후기		매체별 계	
미디어	인쇄물	4	1.0%	12	2.2%	7	1.6%	23	31
	영상기자재	4	1.0%	3	0.6%	1	0.2%	8	
꾸미기	끈 종류	3	0.7%	10	1.9%	10	2.2%	23	77
	반짝이 종류	0	0.0%	3	0.6%	6	1.3%	9	
	꾸미기 재료	6	1.5%	13	2.4%	18	4.0%	37	
	천(섬유)	1	0.2%	2	0.4%	5	1.1%	8	
자연물	곡물류	4	1.0%	5	0.9%	6	1.3%	15	34
	식물류	4	1.0%	5	0.9%	10	2.2%	19	
기간별 합계		404		539		450		1,393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는 드로잉 및 페인팅 매체였다. 건식 매체는 지적장애인의 감정 표현을 용이하게 하고 치료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되었으며, 사용자 친화적인 특성이 강조되었다(김영희, 1996). 평면 건식 매체는 접근이 용이하고 자기를 쉽게 의사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인식하며 이해하고, 협동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성숙, 2013). 선행연구는 지적장애인들이 자기표현을 할 때 건식 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간별 매체 사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404회, 중기에는 539회, 후기에는 450회로 총 1,393회가 관찰되었다. 이 중 중기에서 가장 많은 매체 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 활동 목적 및 방법에 따른 프로그램 분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활동 목적 및 방법에 따라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활동 목적 및 방법에 따른 프로그램 분류

활동 목적 및 방법	프로그램 활동명
자기 표현 및 자기 인식	• 나를 소개해요, 또 다른 나, 난 이런 사람이야 • 나의 자화상, 방송 인터뷰, 우린 패션 디자이너 • 자기소개 및 이름 꾸미기, 나에게, 내가 만들고 싶은 것 • 오늘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기, 그림으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그려서 소개하기 • 나에게 선물하기, 자기방 가꾸기, 나의 얼굴, 나의 집, 나의 가족 • 이게 바로 저예요!, 내 기분은요, 나를 표현하기 •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싶은 것 • 자화상 그리기, 내 마음의 캘리그래피, 내 반려가족의 좋은 점과 바라는 점 • 나의 꿈 탐색, 소망 나무 만들기, 우리는 하나, 나의 신체 • 나의 꿈 탐색 콜라주나무 만들기, 작품집 만들기,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 마음을 담아요
감정 표현 및 감정 관리	• 내 짝지의 손, 기분을 말해봐, 감정표정 그리기 • 나의 기분은 어떤가요?, 자주 느끼는 감정, 감정 파이 • 감정의 표정,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버리고 싶은 감정, 갖고 싶은 감정 • 나의 장점 찾기, 감정 카드, 감정 떠올리기, 내 마음 속 이야기 • 감정 인형, 슬픔의 자유화, 어둠 속의 빛, 강점 찾기 • 풍선과 함께 사라지다, 착해져라, 내 마음의 발 • 즐거운 놀이시간, 내 마음은 보물상자,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 내 기분은!, 마음 탐험가
창의적 표현 및 자유화	• 분할 색칠하기, 핑거페인팅 자유화, 곡물 놀이, 직물 붓 • 데칼코마니, 녹말 놀이, 밀가루 놀이, 액체 괴물 만들기 • 자유화, 난화, 도형화, 이름 꾸미기, 나의 얼굴, 나의 손 본뜨기 • 핑거 페인팅, 난화, 자유화, 나의 얼굴, 나의 나무, 이름 꾸미기 • 손 본뜨기, 얼굴 완성하기, 스티커의 변신, 천사 점토로 표현하기 • 물감으로 데칼코마니, 물감 불기, 밀가루 쿠키, 전지에 자유화 그리기 • 신체 본뜨기, 가족 얼굴 만들기, 사과 표현하기, 모자이크, 만다라 • 앨범 만들기, 손님 초대하기, 자기표현을 잘하는 나 • 상장 만들기, 소망이 이루어지길, 꿈동산에 모여라, 알록달록 색깔 쌀 •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그리기, 만다라 모빌, 만다라 협동 • 날 따라 해봐요, 내 친구 얼굴, 무지개가 떴어요

활동 목적 및 방법	프로그램 활동명
사회적 상호작용 및 협력	• 규칙 정하기, 글라스 데코 모빌 만들기,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 • 여러 가지 얼굴 표정, 친구의 얼굴 꾸미기, 친구에게 카드 보내기 • 두 손 모아 한마음, 손에 손잡고, 최고의 상, 밥상 우리가 만든 세상 • 맛있는 상 차리기, 협동 만다라, 신체 본뜨기 • 자연재료를 이용한 미술치료, 정크아트와 결합한 미술치료 • 친구야 놀자, 내 마음의 발, 대단한 요리사, 친구의 얼굴 꾸미기 • 우리 가족 소개하기, 가족에게 카드 보내기, 친구에게 카드 보내기 • 직장 동료 이야기, 공든 탑을 쌓아요, 학교 꾸미기, 파티 열기 • 앨범 만들기, 손님 초대하기, 협동 만다라, 마음을 담아요
재료 및 기법 탐색	• 휴지죽 놀이, 커피 가루로 이름 쓰기, 무로 만든 도장 • 몽글몽글 크림, 테이프 그림, 휴지 그림, 풀 그림 • 비눗방울 그림, 배추로 나무 찍기, 도형 과자 그림, 도르륵 종이 갈기 • 스크래치, 신체 따라 그리기, 푸드 아트, 과자로 만든 내 친구 • 사포그림 만들기, CD 꾸미기, 연필꽃이 만들기 • 글루를 이용한 촉감 놀이, 색종이 연상, 만다라 컬러링, 종이접기 • 중요한 향아리, 계란화, 하트 열쇠고리 만들기 • 신체 본뜨기, 가족 얼굴 만들기, 사과 표현하기 • 모자이크, 만다라, 종이접기, 우산 만들기, 조명 만들기 • 고무찰흙 사포 그림, 신체상 본뜨기, 타일 꾸미기, 대고 그려요 • 학종이 그림 그리기, 엽서를 만들어요, 끈끈이 모래놀이, 신문지의 변신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 결과 콜라주, 모자이크, 난화 등 다양한 미술 매체와 기법을 활용한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 자기표현 연구의 프로그램 목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120회, 29.7%), 감정인식 및 자기표현(99회, 24.5%), 관계 형성(78회, 19.3%), 기타(44회, 10.9%), 긍정적·부정적 자아상(26회, 6.4%), 흥미 유발(19회, 4.7%), 타인 인식 및 타인 이해(18회, 4.5%)가 주요 목표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들은 주로 자기표현, 자기인식, 감정 표현 및 감정 관리, 창의적 표현 및 자유화, 사회적 상호작용 및 협력, 재료 및 기법 탐색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구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바람으로 2005년 한국·미국의 미술치료 연구 동향 연구(최윤희 외, 2005)를 시작으로 다양한 미술치료 동향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유아나 노인과 같이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한 연구들(문정희 외, 2018; 손가화, 이병인, 2014; 이미옥, 2006; 이창정, 이미옥, 2008),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박순애, 2016)에서는 31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재활치료 방안과 발달 재활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발간하였다. 또한, 동향 분석인 건강장애 미술치료 문헌 연구에서는 16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김혜진, 2023).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명시된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에 관한 출처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4년 동안 연구된 학술논문 31편과 학회지 4편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 정보를 (발행 연도, 발행 기관, 전공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년 동안 관련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었다. 김혜진(2023)에 의하면, 성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에서 연구 자료의 동향은 국내 미술치료가 신설된 이후 2014년,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는 미술치료와 지적장애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위논문 발행 기관 중에서는 대구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가 각각 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술논문의 발행 기관으로는 정서행동장애연구가 2편, 임상미술심리연구와 미술치료연구가 각각 1편의 연구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에 관한 연구가 특정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관에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현황에서는 미술치료 전공이 가장 많았으며, 학술논문의 경우 정서행동장애연구에서 2편, 임상미술연구와 미술치료연구에서 각각 1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수은(2011)은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미술치료 관련 대학원의 신설과 미술치료 전공자들의 양적 증가가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기정희 외(2011)는 미술치료 과정에서 다양하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의 참여와 사회적 관심, 제도적 변화에 의한 수용자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이는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

표현 연구가 미술치료학뿐만 아니라 예술치료학, 특수교육학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 분야에서 미술치료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전공별 연구 현황은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 연구가 특정 학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술 표현에 대한 자신감 향상, 적극적 집단 참여, 몰입과 성취감 고취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치료가 미술 표현의 발달과 자기표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 정유림(2008)의 연구와, 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성인의 부정적 자기표현을 개선하고 자기표현의 향상을 이루는 데 효과가 있다는 송은수(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계 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연구 대상 성별은 남성(53.9%), 여성(46.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8%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 대상이 연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되었음을 시사한다. 발달 단계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성인(57.8%)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34.4%), 아동(2.3%) 순으로 나타났다. 6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박철환, 최영주(2018)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노인 미술치료에 관한 국내 학위논문의 발행 빈도는 매년 평균 3.5편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비하게 나타났다.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해 미술치료가 지니는 의의는 상당히 크다. 치료에 대한 거부감 혹은 치매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노인들을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그림은 영속성이 있어 망각으로 인해 지워지지 않고 내용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전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적 가치를 갖는다(공마리아, 2004). 선행연구는 노인 미술치료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 등급제가 적용된 연구 대상 분석 결과에서는 2급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김혜진(2023)의 연구에서는 3급 장애가 19편(36.5%), 2급 장애가 16편(30.8%)으로 나타났으며, 1급보다는 장애 등급이 높은 3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2급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현재는 장애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분석은 지적장애 미술치료 연구에서 성별, 발달 단계, 장애 정도에 따른 연구 대상 특성을 파악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과 특정 대상 집단에 대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구조분석 결과 회기 수는 1015회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이선민(2016)의 연구에서는 주로 1620회기로 진행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회기별 소요 시간은 60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진령(2005)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집단의 경우 회기당 30~40분, 고학년은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발달 단계에 따라 회기당 시간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회기 수는 연구자들이 주 1회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유형에서는 단일 집단 사례 연구가 15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설계는 단일 대상 사전-사후 검사 설계와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였다. 연구 측정 도구에서는 객관적 검사 도구가 54회 사용되었으며, 이 중 자기표현 평정척도(18회)와 미술적 자기표현 능력 평가(8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투사적 검사 도구는 총 23회 사용되었으며, 주요 도구는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12회), 동적 학교 생활화(KSD)(4회), 집-나무-사람 그림검사(HTP)(3회)였다. 객관적 검사 도구는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 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며, 투사적 검사 도구는 피험자의 무의식적인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자기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목표 분석에서는 총 7가지 목표로 구분되었으며, 가장 많은 중재 목표는 자기성장 및 자기실현으로 나타났다. 미술치료 매체 분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매체는 드로잉 및 페인팅 매체였다. Rubin(2001)은 미술치료사가 간단한 매체를 선호한다고 주장했으며, Malchiodi(2008)는 아동의 자발적인 표현을 이끌어내기 위해 간단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연구자들이 드로잉 및 페인팅 매체를 가장 많이 활용한 이유는 건식 매체의 편리함과 접근성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 치료 단계에서 매체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자기표현의 필요성이 증가하거나, 치료적 개입이 집중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콜라주, 모자이크, 난화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자기표현, 자기인식, 감정 표현 및 관리, 창의적 표현 및 자유화, 사회적 상호작용 및 협력, 재료 및 기법 탐색 등으로 구조화되었다. 특히 가위로 사진을 자르고 재구성하며 해체와 재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콜라주 작품은 비언어적 정서 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이근매, 아오키토모코, 2010). 콜라주와 모자이크 활동은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과 자기인식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 결과,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 자기표현 연구는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지적장애 미술치료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RISS의 국내 연구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계가 있다. 국내외 다른 학술지와 단행본을 참고하여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 미술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적장애를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가 필요하다.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감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개별화된 치료 계획과 효과적인 미술치료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객관적 검사 도구가 투사적 검사 도구보다 더 많

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인지적·정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객관적 검사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투사 검사 도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적장애 미술치료에 대한 매체 연구는 개인의 선호도에 맞는 매체 선택과 접근이 용이한 맞춤형 매체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미술 매체(예: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 태블릿, 그래픽 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 개념, 자아 존중감, 인지 기능 향상, 사회적 참여, 자립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 분석 결과, 객관적 검사 도구가 투사적 검사 도구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적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경우,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객관적 검사에서 요구되는 문제 이해와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투사 검사 도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평가하는 검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적장애 미술치료에 대한 매체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선호도에 맞는 매체 선택과 접근이 용이한 맞춤형 매체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21세기에 적합한 디지털 미술 분야의 매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 디지털 미술, 컴퓨터, 태블릿, 그래픽 펜 등을 활용한 디지털 미술 작품 등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 개념과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고, 인지 기능 향상, 사회적 참여, 자립성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령 (2007).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공마리아 (2004). 장애인과 미술치료. **한국예술치료학회 제26회 월례학술발표회**(pp.12-17). 한국예술치료학회.
- 곽예지 (2016).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표현력 증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기정희, 이숙미, 김춘경, 정종진, 최응용 (2011). 한국 미술치료의 연구동향-한국미술치료학회지 게재논문(19942010)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18(2), 463-483.
- 김경희 (2013). 감상중심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성인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 김도희 (2017).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의 중재현황과 연구경향 분석 - 1994년 2016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4.4 879-905.
- 김도희 (2017).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한 국내 미술치료학 분야의 지적구조 규명에 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3(1), 1-29.
- 김도희, 김혁진 (2022). 긍정심리학을 활용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2013-2021):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 고찰. **미술치료연구**, 29(5), 1-20.
- 김선정 (2009). "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아동의 정서능력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 국내 박사 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 김소연, 원희량 (2024). 장애 아동·청소년 미술치료에서 미술치료사의 어려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술치료연구**, 31(2), 261-282.
- 김영희 (1996). 다양한 재료를 통한 미술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 김지연, 박현우 (2023).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술치료학회지**, 30(1), 1-20.
- 김혜진 (2023). 성인 지적장애인 미술치료 국내연구동향분석, 석사학위논문,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 도은록 (2008). 점토를 활용한 소조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미술표현력 및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박세미 (2017). 노래중심 음악활동이 지적장애 근로자의 자기표현과 긍정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순애 (2016).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동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

- 교 교육학과.
- 박재국, 김진주 (2014).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부산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4), 25-47.
- 박철환, 최영주 (2018). 노인미술치료에서의 연구방법 특성에 대한 메타분석 2012~2016년도에 발행된 국내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5(2), 229-243.
- 손혜란, 손혜주, 이상경 (2024). 지적 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 미술치료 사례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10(2), 743-758.
- 송은수 (2009).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성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송주혜 (2012). 직업적응훈련 과정 중에 있는 성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윤명경 (2005). 정신지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자기 표현력과 자기 효능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근매, 아오키 토모코 (2010). **콜라주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 이상설 (2012). 중등학교 교육에서 미술치료의 역할 및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선민 (2016).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사례 동향 연구: 2010년-2015년 국내 및 국외 학회지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은 (2011). "국내 정규 미술치료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연구 동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1.2 95-135.
- 이주연 (2016). 음악매체와 심신치료,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 37-61.
- 이한솔 (2022). "지적장애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한 자연매체 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장성숙 (2013).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와 학교생활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9, 5-21.
- 정미숙 (2003). 정신지체 청소년의 자율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효과: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여주 (2003). **미술치료의 이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정유림 (2008). 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정유림 (2009). 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

- 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정창숙 (2016).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미술치료의 효과, **미술치료연구**, 22(3), 45-63.
- 주리에 (2012). **이구동성 미술치료: 미술치료: 이론의 종합편**. 서울: 학지사.
- 진혜림 (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유아 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IEP) 실행 경험,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최미경 (2011). 통합미술치료가 초등학교 특수학급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Lowenfeld, Viktor. **"창의적 정신적 성장"** (김인숙, 신현식 역), SGS 서진교육.
- Malchiodi, C. A. (2008).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에 대한 창의적 개입**. 길포드 프레스와 와일리 인터사이언스 출판물.
- Rubin, J. A. (Ed.) (2001). **Approaches to Art Therapy: Theory and Technique**, 2nd ed.

〈부록 1〉 연구동향 분석논문: 국내 학위논문

- 강연숙(2023).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발달적 미술 치료 사례연구.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예지(2016).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표현력 증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금남(2018). 미술치료가 네말린근병증 발달장애 유아의 자기표현력 증진 및 눈-손 협응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아소피노아트와 조소활동을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복지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권수정(2018). 자기표현 향상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쌀점토 활용 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13). 감상중심미술치료프로그램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열 (2010). 만다라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바름 (2019).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기표현력 증진을 위한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희 (2017). 미술자기표현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성인의 사회성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홍 (2018).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표현력과 행동특성에 대한 조형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 (2020). 중증 지적장애 성인의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IT 매뉴얼 기반 통합예술치료 적용.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2020).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자기표현 및 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인 (2018). 지적장애아동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질적 사례연구.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영 (2023). 퍼포먼스 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표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소연 (2016). 통합미술치료가 직업적응훈련반 지적장애 성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아 (2010). 지적장애 성인의 고립행동 감소와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민 (2015). 미술치료가 전반적 발달장애 유아의 자기표현력 증진과 눈-손 협응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정 (2020).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지적장애성인의 자기표현 향상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대전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하늘 (2021). 명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시설거주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해정 (2024).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거주 성인 여성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 및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순영 (2016). 미술치료가 경도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력 향상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 단일사례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실 (2018). 경도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적 미술치료 사례연구. 대전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가영 (2013). 통합미술치료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자기표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준 (2013). 위축 행동과 자기표현 문제를 가진 지적장애 아동의 미술치료 사례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11).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효영 (2024). 지적장애청소년의 미술적 자기표현에 관한 미술치료 개인사례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주혜 (2013).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숙 (2023).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 증진 미술치료 사례연구 - 점토 활용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우 (2018). 난화 상호이야기법을 활용한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언어이해력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한내 (2011). 미술치료가 특수학급 발달장애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희 (2013).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성인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영 (2018). 미술치료가 시설 거주 지적장애 성인여성의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선 (2015).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록 2〉 연구동향 분석논문: 국내 학술논문

- 윤혜일, 최선남 (2010).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4(2), 103-123.
- 박혜정, 공마리아 (2018).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4(3), 45-66.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오현숙 (2021). 지적장애아동의 문제행동 감소 및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11(2), 55-82.
- 김세희, 김정애 (2020).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성인의 미술자기표현과 사회성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7(1), 153-176

논문 투고 : 2024.10.13.	논문 심사 : 2024.11.29.	게재 확정 : 2024.12.11.
---------------------	---------------------	---------------------

Abstract

Analysis of Trends in Self-Expression Through Art Therapy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Focused on Domestic Theses from 2010 to 2024

YoungSook Jo*, JinJa 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art therapy for enhancing self-expression in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achieve this, 35 studies, including 31 theses and 4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South Korea between 2010 and 2024, were analyzed in terms of publication information,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publication information (year of publication, institution, and academic discipline) revealed a consistent trend of publications from 2010 to 2024, with the highest number of studies published in 2016 and 2020.

Second, an analysis of research subjects (gender, developmental stages, and levels of disability) showed that male participants outnumbered female participants.

Third, regarding research methods (structural analysis, criteria for analysis, assessment tools, program goal analysis, media classification, and program classification), the single-group pre-test and post-test design was most commonly employed.

* Ph.D. Candidates, Dept. of Speci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researchers conducting art therapy aimed at improving the self-expression abilities of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roviding directions and evidence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programs in clinical settings.

Keywords: intellectual disabilities, self-expression, art therapy, domestic research trends